

Queen of Peace Missionaries

P.O. Box 843  
Ridgefield, NJ 07657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S. HACKENSACK, NJ  
PERMIT NO. 1015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주관 2016년 성지순례



평화의 모후 선교회 성지순례는 항공권을 구입해서 참여하는 매우 경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항공권 구입 안내 : 201-945-4777 / CP 917-626-4314 / qpmm.org@gmail.com / www.qpmm.org

\$2,500

**이스라엘**  
2016년 3월 4일 ~ 12일 (8박 9일)  
(JFK 출발 항공료 포함)

문의

**메주고리에, 드브로브닉, 이태리, 프랑스 기적의 메달 성당, 루르드, 느베르의 벨라벳다 성녀수도원, 리지외의 소화데레사 성녀 생가, 바뇌와 보랭의 성모발현지**  
5월 16일 - 31일 (16박 17일)

\$1,550

**메주고리에, 발칸반도의 드브로브닉, 몬테네그로, 이스탄불**  
2016년 3월 12일 ~ 23일 (11박 12일)

문의

**메주고리에 성모님발현 35주년 기념순례 드브로브닉, 몬테네그로**  
2016년 6월 20일 ~ 30일 (11박 12일)

\$1,975

**메주고리에, 폴란드, 프라하, 이스탄불**  
2016년 4월 18일 ~ 29일 (11박 12일)

\$950

**제 27회 메주고리에 세계청년대회**  
2016년 7월 28일 ~ 8월 10일 (13박 14일)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성모님의 메시지 전파를 위한 "평화의 모후" 소식지 발행과 무료 보급 및 "신앙체험을 위한 성지순례" 사명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체입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 홈페이지 [www.qpmm.org](http://www.qpmm.org) 에서 성모님의 매일 메시지와 '평화의 모후' 소식지 및 2016년 성지 순례 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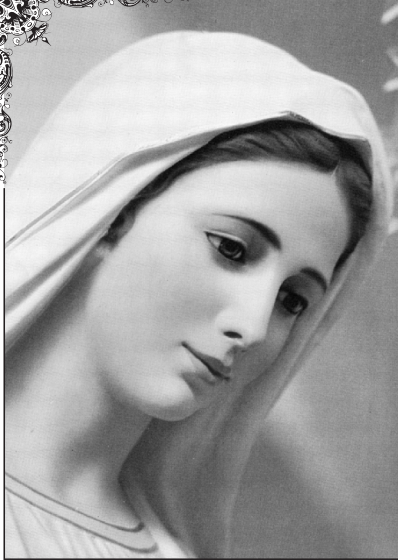
2015 제 71 호

Queen of Peace Missionaries



MEDUGORJE  
**평화의 모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오늘도 역시 나는 성령께서 너희의 마음을 강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단다. 기도와 믿음이 너희의 마음을 사랑과 기쁨으로 채워 줄 것이며, 너희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징표가 될 것이다. 나의 어린 아이들아,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 주어라. 그렇게 함으로써 기도가 너희들의 삶을 가득 채우도록 하여라. 나의 어린 자녀인 너희들은, 매일 매일, 그 무엇보다도, 하느님께 찬미드리고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 봉사하는 증거자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위해 전구하고 있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2015년 9월 25일 성모님의 메시지

"몬시놀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주 한인 가톨릭의 "반석이며 기둥"이신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놀님께서  
선종하셨습니다. "박 몬시놀님은 저희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이셨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주 한인 천주교회의 초석을 마련해 주시고 2004년부터 10여년 동안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신부님이시며 저희들에게 큰 기둥이 되어 주셨던,  
박 창득 어거스틴 몬시놀님께서 9월 18일(금) 오후 4시 44분에 선종하셨습니다.  
몬시놀님의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위해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 71호 소식지 발행에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과 봉사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 마태오, 강인숙, 강운순, 국영주, 권승희, 권민, 김건일, 김크리스티나, 김정자, 김종희, 김정자, 김테레사, 김명자, 김마테라, 김소피아, 김인숙, 김은숙, 김세록, 김소피아, 김수돈, 김수진, 김성옥, 김순영, 김성주, 김양희, 김안희, 김애숙, 김옥순, 김원경, 김율리아나, 김유스티나, 김은경, 김영수, 김영은, 김재문, 김정숙, 김정연, 김종인, 김청자, 김창오, 김정혜, 김진숙, 김기원, 김현심, 김추자, 김홍자, 김희강, 김영자, 김동현, 남미나, 남승자, 노마리아, 노종희, 민금이, 민병돈, 민현희, 민정숙, 민성기, 민태숙, 문남윤, 문경숙, 박로마나, 박만선, 박세실리아, 배현숙, 박영희, 박은자, 박정미, 박철편, 박지선, 박재희, 박창서, 박춘애, 박현우, 박혜선, 박혜옥, 배정희, 배현숙, 백민현, 백안셀모, 빈용식, 신미정, 서명희, 서종원, 성시용, 성혜경, 송영희, 성인희, 송미숙, 심귀순, 오세완, 오영숙, 오현의, 오진현, 오수산나, 안희숙, 안경희, 윤비오, 윤케티, 유종애, 유춘옥, 이정자, 이건설, 이계인, 이경매, 이근옥, 이동숙, 이동희, 이마리아, 이막달레나, 이명자, 이명진, 이문자, 이민희, 이남숙, 이선주, 이순화, 이성대, 이성숙, 이송주, 이송자, 이승희, 이수지, 이숙희, 이순세, 이선녀, 이신정, 이미영, 이명자, 이연기, 이인옥, 이한슬, 이한나, 이호기, 이현숙, 이인순, 이제니, 이재권, 이테레사, 이기미, 이제니, 이종천, 이준모, 이춘정, 이찬기, 이한춘, 이해영, 이희자, 안영진, 유미경, 임은희, 임계자, 조병옥, 조주란, 조민현, 정순옥, 장정희, 장보형, 장광수, 장윤경, 장강수, 장윤희, 장숙영, 장한순, 전문석, 전영자, 전종례, 전현숙, 정찬례, 정선녀, 조진자, 조광자, 조정희, 조현자, 조혜경, 지니김, 지영덕, 지주디, 지정해, 진도미니카, 진은필, 정은원, 정승연, 정정숙, 정재은, 차태선, 채상희, 최경숙, 최경순, 최숙희, 최대명, 최영심, 최정임, 최옥진, 최인숙, 최정선, 최정신, 최정임, 최영심, 최혜선, 최희순, 한옥림, 한옥인, 한정애, 한옥심, 한정순, 한주용, 한자영, 허명순, 홍연수, 홍진순, 홍정숙, 홍경숙, 황계자, 황은경, 희숙 마리아, 편영옥, 벤쿠버 성 김대건 평화의 모후 기도회

Fr. John Robert McFadden, Paul Edward Veneziaie, Jacqueline Snedeker Peetros, Joseph Philip Britt, Mary Purner, Donna Maria Ottaviano, Ronald Francis Kelley, Julie Adele Kelley, Barbara Anne Brooks, Andrea Orsini, Alicia Pruner, Anne Ridder Jordan, Eileen Marie Siter, Robert Squitiere, Roseann Squitiere, Marie Elaine Ralbusky, Joan Marie Reiley, Kathleen Shelcusky, Magdalen Stengel, Anna May Widmeier, Lucille Theresa Nazzario, Andrew Lourdes Ruoff, Dominic Anthony Kurtz, Louisabella Kampmeyer, Gary Everett Kampmeyer, Anita Angeline Juliano, Paz M Vega, David Anthony Juliano, Ester Eun Young, Robert Joseph Matthews, Theresa Marie Murray, Kathleen Anne Flynn, Tak Lee, Bills, Sunye, Mullins Insuk, Sun Grizzle, Luke Y. Sunwoo, Yerger Henry, Paul J. & Mary Lee, Yon Johns, Mee Kang, Young Yun, Sunny Bertao, Chae Yong Yun, OkinJoo, David Rigoni, Ok Soon Nguyen, Mun Sim, Chin Stella, Paul Ryou, Anna Cho, Cathy Khang, Yong Sipe, Sukun McGee, Chung Shendelman, Young Sin, Agnes Karosas, James Taphorn, Joo Kim, Man Park, Yong Bei Murphy, Isabel Nam, Bernadette Kim, Christiana Chong, YeunPyo Jones, Christiana Kim, Antal, Uncha, Tillotson, Hannah, Litzeman Meekyung, Hollingsworth Unhui, MeidenbauerGwisun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

-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과 구원을 위하여...
- 평화의 모후 선교회와 어머니 마을을 위하여...
- 연옥 영혼들과 가장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 주님, 딸 세실리아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000가 투병중인 암을 치유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 주님,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저희가족들을 구해 주소서.
- 동생들의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 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아들 부부가 화해하고 성가정을 이루도록 도와주소서.
- 예수님, 마음의 평화를 갖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청합니다.
- 자녀들이 회개하고 성당에 잘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000의 우울증과 마음의 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예수님, 암으로 투병중인 000에게 영육간의 치유은총을 내려주소서.
- 성모님, 하늘의 여왕 프레스비디움 단원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돌보아 주소서.
- 손자가 세례를 잘 받아서 하느님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봉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청합니다.
- 냉담하고 있는 자녀들이 성체성사의 은혜 안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저희 가족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 000에게 굳센 믿음 주시고, 공부를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 성모님,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동생의 건강과 가족들을 보살펴 주소서.
- 주님,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회원들과 가족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보살펴 주소서.
- 남편의 건강 회복과 새로운 직장과 가족들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 바오로에게 건강과 굳센 믿음 주시어 주의 성전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 주님, 새로운 타주 생활을 시작하는 000의 앞날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주소서.
- 성모님, 000이 받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와 상처를 준 사람들과의 화해를 위해 기도합니다.
- 000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보살펴 주소서.
- 딸 000에게 굳은 신앙과 믿음을 주시어 이단종교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소서.
- 성모님, 000가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소서.
- 주님, 회개하고 기도 안에서 살고 싶은 마음과 달리 세상의 유혹에서 헤어날 수 못하는 저를 구해 주소서.
- 우리 주 그리스도의 수난을 24시간 묵상하는 고리기도 가족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지향을 봉헌합니다.
- 주님, 낙태를 하고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지내 온 저의 죄를 어떻게 하면 씻을 수 있을까요. 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우리 아기들에게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모님, 죄인을 위해 빌어 주소서.
- 성모님, 당신의 사제로 충실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다 세상을 떠난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님의 영혼을 당신의 품에 안아 주소서. 그에게 필요한 은총을 내려 주시어 영원한 안식과 평화속에 길이 쉬게 하소서.
- 성모님, 영옥영혼들과 기도받지 못하는 버림 받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루빨리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소서.

- 지면상 이곳에 올리지 못한 모든 기도 지향들도 함께 미사를 봉헌해 드리고 있습니다.





DIOCESE OF PATERSON

Diocesan Center  
777 Valley Road  
Clifton, New Jersey 07013

Office of  
THE BISHOP

(973) 777-8818 Fax (973) 777-8976

## 동성애 결혼 대법원 판결에 관한 주교의 서한 2015년 6월 26일

패터슨 교구 교구장 S.T.D., S.S.L., D.D. 대주교 아서 세라텔리



"주님안의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최근의 대법원 판결은 우리나라의 결혼에 관한 법적 정의를 새롭게 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의 문화적 추세에 대응하여 판사들은 동성 간에 결합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시민 및 기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수 천 년 동안 모든 인종 및 종교를 통해 지지 되어온 결혼에 관한 이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장기적으로 정치, 경제, 교육 및 종교의 자유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 판결의 부정적인 결과가 우리의 가톨릭 학교, 대학, 병원, 자선단체 및 교회에 미치게 될 영향들은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명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교로서, 나는 신앙의 유산으로 사도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전달하는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신실한 가톨릭 신자들인 여러분이 아래의 믿음에 관한 진리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할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양심을 판단하는 일을 삼가합니다. 하느님만이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각각의 개인을 올바르게 판단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자연법의 근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우리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동정심을 가지고 말합니다.

둘째, 정확히 말하자면 이성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및 세상에 관한 객관적 진리가 존재함을 믿습니다. 객관적 진리는 창조를 위한 하느님의 계획에 근거한 것이고 어떤 시대의 정치적 및 문화적 추세에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의심할 여지없이, 하느님께서 의도하신 가정에 관한 객관적 진리는 모든 사회의 선익을 위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객관적 진리입니다. 창세기의 바로 첫 번째 페이지로부터 우

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음을 배웁니다. (창세 1:27). 하느님의 창조적 계획의 아름다움 속에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상호보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이를 제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초래" 합니다. 법원과 헌법이 결혼의 정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자연법 안에 새겨져 있는 하느님의 사랑스런 계획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톨릭 신자로서 우리는, 결혼은,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평생 동안 서로에게 충실하고 서로 사랑하겠다고 다짐함으로써 생명을 중시하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것이라고 교회가 우리에게 전해온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맹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간직하고 보호하는 결혼에 대한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넷째, 한 나라의 법은 하느님의 창조 계획에 부합되느냐에 따라 옳고 그름이 판명됩니다. 사람의 법은 그릇될 수 있고 변합니다. 1875년 이 나라의 대법원은 노예법을 합법화했습니다. 이것은 악을 용인하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입니다. 법원이 어떤 것이 옳다고 판정한다고 해도 그것을 올바르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궁극적으로 더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에게 책임을 져야합니다.

교회의 결혼에 관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 우리 자신의 가족들조차도 인내와 사랑으로 함께 하는 한편,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결혼에 관한 하느님의 신성한 계획을 지지하고 권장하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에 대한 우리의 충실함과 삶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무한한 선익을 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장차 우리의 신앙이 많은 도전을 받을 것이고, 박해도 받을 것이기에, 나는 "희망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에서 얻는 모든 기쁨과 평화로 채워 주시어,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의 힘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로마 15:13) 라고 기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DIOCESE OF PATERSON**

Diocesan Center  
777 Valley Road  
Clifton, New Jersey 07013

(973) 777-8818 Fax (973)777-8976

Office of  
**THE BISHOP**



Dear brothers and sisters in the Lord,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Obergefell et al. v Hodges” has now redefined the legal definition of marriage in our country.

Responding to the cultural trends of the last sixty years, the judges have made a decision that will affect not only those individuals who decide to enter same-sex unions, but every citizen and institution within the nation.

This decision rejects the understanding of marriage that has been held across the millennia by people of every race and religion. The consequences of this decision will have long-range effects in politics, economics, education, and, in no small way, religious freedom. The adverse consequences of this decision will become more and more evident in the days and months ahead in terms of our Catholic schools, universities, hospitals, charitable institutions and churches.

As your bishop, I take serious my responsibility to safeguard and pass on to you the teaching of Jesus that has been handed down to us by the apostles in the deposit of faith. Therefore, I ask you to always keep in mind, as faithful Catholics, the following truths of faith.

First, as believers, we abstain from judging the consciences of those who choose to live in lifestyles contrary to the teaching of Jesus. Only God sees the heart and judges rightly each human person. As a consequence, we speak charitably and compassionately of all people, even those who disagree with us on fundamental truths of the natural law.

Second, precisely because we are people of reason and faith, we hold that there is objective truth about the human person and the world. Objective truth is founded on God’s design for creation and independent of the political and cultural trends of any age.

Third, without a doubt, the objective truth about family, as intended by God, is a most fundamental, objective truth for the good of all society. From the very first pages of Genesis, we learn that God created us in his own image and likeness, male and female, he created us. (cf. Gn 1:27). In

the beauty of God's creative design, marriage is based on the complementarity of man and woman. As Pope Francis has said, “the removal of difference, in fact, creates a problem, not a solution.”

Courts and constitutions may change the legal definition of marriage. But, they cannot alter God's loving plan inscribed within the natural law.

As Catholics, therefore, we are committed to the teaching of Sacred Scripture faithfully handed down to us by the Church that marriage is, by God’s design, a union between a man and a woman, open to life, in a lifelong commitment of fidelity and mutual love. That is God's gift of marriage that we cherish and seek to protect.

Fourth, the laws of a nation are good or bad only insofar as they are in accord with God's plan for his creation. Human laws are fallible and change. In 1857, the Supreme Court of this nation upheld slavery. Clearly, a bad decision condoning an evil. Because a court tells us something is good does not make it good. We, as believers, are ultimately responsible to a higher authority.

While accompanying, with patience and love, others, even members of our own families, who do not accept the Church's teaching on marriage, as believers, we cannot cease to support and promote God's sacred plan for marriage. Please keep in mind that, by our own fidelity to what is good in God's eyes and by the witness of our lives, we are of invaluable benefit for all of society.

In the days ahead as we face many challenges to our faith and, perhaps, even persecution, I pray that “the God of hope fill you with all joy and peace in believing, so that you may abound in hope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Rm 15: 13).

Invoking God's blessing on each of you and your families, I remain,

Sincerely yours in Christ,

Most Reverend Arthur J. Serratelli, S.T.D., S.S.L., D.D.  
Bishop of Paterson

(<http://rcdop.org/news/bishops-letter-on-the-recent-brsupreme-court-decision>)



성모님  
메시지 묵상



"하느님께로 마음을 열어라."

류보쿠르토 비치 신부

2002년 10월 25일 성모님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나는 기도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어린 아이들아, 단순한 기도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라. 기도를 통해 너희가 하느님께 마음을 열면, 그분께서는 너희 삶에서 기적을 행하신단다. 그 열매를 보고, 너희는 하느님께서 너희 삶에, 또 너희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너희 마음은 충만할 것이다. 어린아이들아, 기도하여라.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은총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라. 그러나 너희는 그 은총을 보지 못하는 구나. 기도하여라. 그러면 그 은총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의 하루가 기도와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해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라.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성모님의 대부분의 메시지가 그러하듯, 이번 메시지도 기도에로의 초대로 시작됩니다. 지금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는 당신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기쁨과 감사로 이끄는 것은 기도입니다. 성모님은 수년간 열의를 다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이 길 외에 다

른 길은 모르십니다. 당신께서 다른 길을 아셨더라면, 우리에게 그 길을 감추실리가 없습니다. 성모님은 당신 자녀 한명 한명을 사랑하시는 어머니이시며, 우리를 잘못 인도하실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모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분 안에서 피신한다면 성모님과 떨어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르나르드 성인은 이런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지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기억하소서. 어머니 슬하에 달려들어 도움을 애원하고 전구를 청하고도 버림받았다 함을 일찍이 듣지 못하였나



## 성모님께서 우리 손과 마음 안에 넣어주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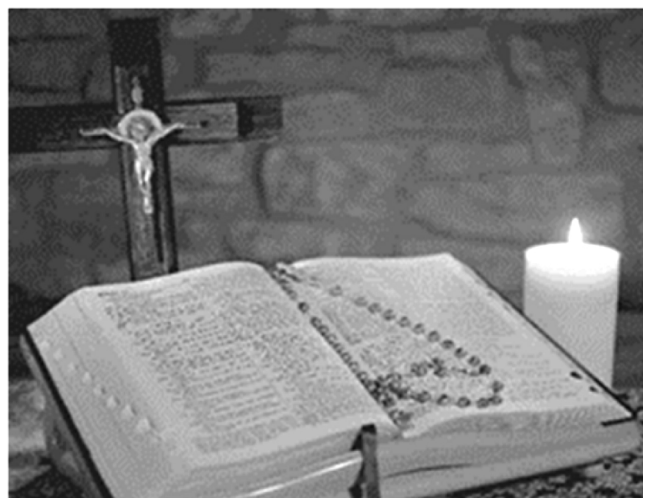
이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효과를 체험했고, 심지어 실제적이고 명백한 체험도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것은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것이며, 또한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별거 아닌 힘없는 도구처럼 보이지만,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 성모님께서 우리 손과 마음 안에 넣어주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인간적인 논리와 지능만 가지고는 기도로 대단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믿기 어렵습니다. 성모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하기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혜로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바로 성인은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서도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1코린 1:21, 25)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루카 10:21). 실로, 작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이곳 메주고리에에서도 어머니의 현존을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고 산 같은 교만을 지닌 자들을 도울 수 없으셨음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가갈 공간도 없고 구원을 주실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공간이 없다면 그분께서는 우리 삶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아빌라의 테레사 성녀는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결정을 기다리십니다." 우리 삶 안에서 당신 친히 모든 것을 해 주시기 위해서이지요. 하나님은 인내심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일생동안 우리를 기다려 주

십니다.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 주시기 위해, 당신으로 하여금 우리가 충만케 하시기 위해 오로지 사랑만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의 마음 하나하나를 기다리시고, 모든 가정이 당신을 소중한 손님과 친구로 받아들이기를, 자캐오처럼 현관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자캐오는 이렇게 문을 열어줌으로써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마음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 감사하고 용서하고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기록해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삶의 진짜 문제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우리가 용서와 용서 후의 자유로움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도록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용서를 체험해보지 못했다는 사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당신 아드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허락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쁘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정에 놓아주신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02년 10월 26일 메주고리에에서  
류보 쿠르토비치 신부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 내게 봉헌한 가정들

(1987년 7월 23일, 신퀴리노 (포르데노데)  
'거룩한 묵주기도' 후)

**나는 모든 그리스도 신자 가정의 티 없는 내 성심에 스스로  
를 봉헌하기 바란다."**

내게 봉헌해 주었기에 내 소유가 된 이 가정의 가족들과 함께, 단순하고 진심 어린 우애 안에서 기도하며 지낸 이 날이 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구나. 너희 삶의 일상적인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내 말이 너희에게 격려가 될 수 있게 말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 가운데 현존하면서 너희에게 말을 건네고,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너희가 이 어머니의 뜻을 이루는 도구인 까닭이다.

### 나는 내게 봉헌한 가정들을 애정을 가지고 본다

이 시대에 내가 가정을 모아 '티 없는 내 성심' 깊은 곳으로 데려 오는 것은, 가정들이 피난처와 안전, 격려와 보호를 얻어 만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내 사제들이 '엄마'와 '모후'로 부르며 기도하는 것을 좋아 하듯이, 내게 봉헌한 가정들도 그렇게 '엄마'와 '모후'로 나를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가정들의 '엄마'이며 '모후'이다. 가정들을 지켜 보면서 그들의 문제를 내 마음에 두고, 가족 개개인의 영적 선의뿐 아니라 물질적 선의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너희가 가정을 내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하면, 그것은 마치 너희 집문을 열고 이 '천상 엄마'가 안으로 들어 오게 초대함으로써 갈수록 힘있게 엄마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내게 자리를 내어 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는 모든 그리스도 신자 가정의 티 없는 내 성심에 스스로를 봉

헌하기를 바란다. 어느 집이든지 내게 문을 열어, 너희 가운데 나의 모성적 거처를 잡을 수 있게 해다오. 그리하면 내가 너희 '엄마'로서 안으로 들어가 너희와 함께 살며, 너희 생활 전체에 동참하게 된다.

### 무엇보다도 나는 너희의 영성 생활을 돌본다

가정을 구성하는 이들의 영혼이 항상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살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다. 내가 들어가는 곳에는 죄가 나간다. 내가 머무는 곳에는 '하느님의 은총과 빛'이 상존한다. 내가 사는 곳에는 순결과 거룩함이 나와 함께 깃들인다. 그런, 즉 엄마인 나의 일차적 소임은 가족 모두가 은총 지위에 머물게 하는 일이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덕목을 실천함으로써 거룩한 생활 안에서 성장하게끔 하는 일이다. 그리고 혼인성사가 너희를 함께 성장시키는 특별한 은총을 주기 때문에, 나의 임무는 가정의 일치를 굳게 심화하는 일이다. 즉 부부로 하여금 더욱 굳고 영적인 친교에 이르게 하고 그들의 인간적 사랑을 완성시키며, 그 사랑을 더욱 완성시켜 '예수 성심' 안으로 가져 감으로써 그곳이 새로운 형태의 더 큰 완전성을 떠먼서 순수하고 초자연적인 '애덕'으로 표현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또한 가정안의 일치를 증강시켜 가족 상호간의 이해심을 돈독히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더욱 섬세하고 심오한 친교에 대한 새로운 욕구를 느끼게 한다. 그리고 가족 개개인을 성화와 기쁨의 길로 인도한다. 이 길은 함께 건설하며 함께 걸어야 할 길이거나, 내가 그렇게 인도함으로



써 그들을 완전한 사랑에 도달하게 하고, 고귀한 선물인 평화를 누리게 한다. 이와 같이 나는 내 자녀들을 기르며, 가정이라는 길을 통해 그들을 성덕의 정상으로 데려간다. 그러기에 가정들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너희를 성화시키고, 완전한 사랑으로 이끌고, 너희와 함께 머물고 너희 가정이 굳건한 일치안에서 더욱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함이다.

### 나는 내게 봉헌한 가정들의 물질적 선익을 돌본다.

가정의 가장 귀한 재산은 자녀들이다. 자녀들은 예수님과 내게서 각별한 표시이니 말이다. 그러기에 가정의 모든 재산 중 가장 값진 보석으로써 자녀를 원해야 하고, 기쁘게 받아 들이며 양육해야 한다. 내가 어느 가정에 들어가면 나는 즉시 그 집 아이들을 돌본다. 봉헌을 통해 내 아이들이 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손을 잡고, 한 아이 한 아이에 대해 이미 영원으로부터 뚜렷이 세워져 있는 하느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로 인도한다. 나는 이 아이들을 사랑한다. 절대로 버리는 법이 없다. 그들이 이 엄마 재산의 값진 일부가 되기 때문이다.

### 나는 특별한 방법으로 너희가 하는 일을 돌보기도 한다

너희가 하느님 섭리의 도우심을 못 받는 때가 도무지 없도록 하며, 너희의 손을 잡아 주님께서 너희에게 인간적 협력을 통해 날마다 이루고 계시는 계획쪽으로 향하게 한다. 나자렛의 작고 가난한 집에서 날마다 겸손하고 충실하게 행한 엄마로서의 일을 통해 너희를 위한 구원 사업을 하시도록 성부의 부르심을 받으신 성자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게 해드렸듯이, 지금도 너희를 불러 매일의 일을 통한 너희의 인간적 협력으로 성부의 계획을 이루게 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 일을 하시듯이, 너희는 너희 몫의 일을 해야 한다. 너희가 하는 일이 하느님 섭리의 역사와 일치되어 있어야, 생활 유지와 가정의 번창에 필요한 선익의 결실을 얻을 수 있고, 따라서 가족들이 언제나 영적 물질적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나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을 실행하도록 너희를 도와준다. 그러면 너희가 하는 일이 영적으로 더욱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된다. 내가 그 일을 너희 공로의 원천이 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슬하계도 길을 잃고 헤매는 내 가련한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되게끔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활동은 너희

안에서 사랑과 결합되고, 하는 일은 기도와 결합 되고, 노고는 갈수록 커지는 애덕의 타오르는 갈증과 결합된다. 이와 같이, 하느님의 뜻에 대한 너희의 협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통해 나날이 구체화되는 '섭리'의 걸작품을 너희가 빚어 내게 되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들어가는 곳에는 안전함도 함께 깃들인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아쉬운 것이 도무지 없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 활동을 더욱 완성시키고 너희가 하는 일 자체를 정화 시킨다.

### 나는 또 너희의 모든 근심거리를 나누어 가진다

오늘날의 가정에는 근심거리가 많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의 것이 동시에 내 것이다. 너희의 고통을 나는 함께 나눈다. 그래서 나는 이리도 어려운 정황기에, 내게 봉헌한 가정들 안에서, 그 모든 고통을 실제로 함께 나누는 '엄마', 함께 근심하며 아파하는 '엄마'로서 현존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위로를 받아라.

### 지금은 나의 시대이다

지금은 곧 너희가 살고 있는 나날이요, '나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특징이 위대하고 강력한 내 현존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대는 나의 승리가 내 '원수'의 현재적 승리를 능가하면서 한층 더 확장 강화될 수록 그만큼 더 내 시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현존은 무엇보다도 티 없는 내 성심에 봉헌한 가정들 안에서 유난히 강력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가정이 내 현존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이며, 그것이 너희에게는 특별한 위로의 샘이 될 것이다. 그러니 신뢰, 희망, 침묵, 일상적인 일, 기도, 겸손 안에서 앞으로 나아 가거라. 순결 안에서 올바른 지향을 가지고 더욱 더 전진 하여라.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에 이르는 어려운 길을 나와 일치하여 나아가거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길을 따라 걸으며, 오늘 내가 한 말을 귀담아 듣고 실천에 옮긴다면, 너희 가정들이 내 승리의 첫 새싹이 될 것이다. 작고, 숨어 있고, 고요하지만 마치 문 앞에 다가온 새 시대를 예고 하려는 듯이, 이미 세계 전역에서 돌아나고 있는 새싹 말이다. 너희 모두를 격려하며 축복한다. **M**

(위의 내용은 "다락방 기도회" 창설자인 스테파노 곱비 신부님에게 1973 부터 1997년까지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참고-가톨릭 출판사,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 치유하는 사랑



몇 년 전, 어느 금요일 밤이었다. 막 TV에서 영화를 보려던 차에 전화벨이 울렸다. 평소 밤 아홉시에 내게 전화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뭔가 급한 일이 생겼다는 느낌이 들었다. 전화를 받으니 젊은 아가씨의 상냥한 목소리가 자신을 본당 교우 마리아라고 소개하면서, 다음날 오후 세 시에 본당에서 생명 존중 프로그램 행사가 있는데 그때 묵주기도를 주관해 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런 일을 해 본 적이 없고 언제나 혼자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마리아는 본당에서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하면서 계속 조르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자신도 함께 내 옆에 있으면서 마음으로 돕겠다고 했다.

토요일이 되었다. 날씨는 무척 맑고 화창했다. 나는 행사 몇 분전에 성당에 도착해서 아는 교우들과 인사를 했다. 그들이 누가 묵주기도를 주관하는지 물기에 내가 한다고 했더니, 고맙다고 하면서 아름다운 메주고예의 성모님의 사진을 주는 것이었다. 그 사진은 어느 신부님께서 로마에서 가져오신 것으로, 그 신부님이 성모님 발현을 보기 위해 메주고리에 가서 발현을 목격하는, 아이들 곁에 있었는데, 신부님은 성모님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아이들이 고개를 젓힐 때 그 방향으로 카메라를 돌려 사진을 찍었다는 것이었다. 정말 놀랍게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고 지금도 볼 수 있다. 일곱 사람이 참석했고, 나는 그들에게 성모님께 아름다운 꽃다발을 드리듯이 묵주기도를 바치자고 청했다. 각 '주님의 기도'와 '영광송'마다 하얀 난초를, 그리고 각 '성모송'마다

연푸른 장미를 바친다고 생각하며 기도를 바치자고 했다. 기도가 시작되었고 순조롭게 이어졌다. 그런데 셋째 단을 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다. 넷째 단을 시작할 때 마리아는 내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숨죽여 우는 것이었다.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성모님께 마리아를 위로해 주십사는 청을 드리며 기도를 계속해 나갔다. 묵주기도를 끝내고 나서야 나는 울고 있는 마리아를 달래 주었고 마리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두 번의 낙태를 했는데 셋째 단을 할 때까지도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몰랐는데 갑자기 마음의 장막이 걷히는 듯하면서 두 태아에게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슬픔이 북받쳐 올랐다고 했다. 나는 마리아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한참 동안 그녀를 안아주었다. 신부님께서 4시에 미사를 거행하셨고 마리아는 제대로 올라가 그 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미사 후에 신부님께서 치유 안수를 해 주셨고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와 함께 기도하며 그녀를 위해 또한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자리를 같이 해 주었다. 참으로 감동적이고 놀라운 경험이었다. 내가 "네!"라고 대답했기에 하느님께서 내게 그런 경험을 허락해 주셨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리아는 그 후 잘 견뎌냈고 지금은 귀여운 딸의 엄마가 되었다.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텍사스 빅토리아에서 카타리나 수녀 (파트리시아 프락터 수녀 역음 / 장말희 옮김 101가지 묵주기도이야기에서)



# 사랑하는 예수님께 드리는 편지

조모니카

사랑하는 예수님, 수난 기도를 하면서 당신께 제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전 요즘 무척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주님! 전 제 자신이 바뀌어 가고 있음을 압니다. 천방지축 말괄량이로 제 비위가 상하면 있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아래, 위 상관없이 바람같이 사라져 버리곤 했습니다. 너희끼리-잘-해-봐 하면서 나의 정의만, 나의 생각만, 나의 의지만이 중요했습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은 아예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에도 주님, 주님 하면서 당신을 찾기는 했었습니다.

주님! 그러던 제가 24시간 수난묵상 고리기도를 하면서 당신을 만났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체험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할 때는 늘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에서 지금은 "당신도 그럴 수 있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낱말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온통 주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변한 것은 제 마음의 평화입니다. 제가 일하는 샵평물에는 평일보다는 주말에 사람이 더 많이 오는 곳입니다. 같이 일하는 종업원이 아프다든가 혹은 일이 있어서 못 나온다고 연락이 오면 마음이 무척 불편해 집니다. (다른 종업원에게 연락하면 개인적인 스케줄로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 손님이 많으면 어떡하나...등등으로 온갖 걱정과 근심이 밀려옵니다. 마음의 평화는 온데 간데 없고 불멘 목소리에, 불친절과 얼굴에 미소는 아예 사라져 버리고... 아마 제 마음속의 나쁜 덩어리들은 통째로 뿔어져 나오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저도 모르게 내 마음이 변해 있습니다. 일을 못 나온다는 전화를 받으면 "주님, 종업원이 오늘 못 온데요. 들으셨죠? 저 혼자 일합니다." 하면서 아무 일 없는 듯이 대신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편하고 들볶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 사랑으로 늘 제 마음을 채워 주시니 마음의 평화를 잃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수난으로 이기적이던 나만의 사랑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동안 저는 미사시간에 맨 뒷자리에 앉아서 누가 오고, 누가 안 오고... 어찌고 저찌고... 하는 생각으로 참여했다면 지금은 맨 앞자리에서 오직 주님과 저만 있다고 느낄 정도로 은혜롭습니다. 오늘 미사 중에는 "이 성찬에 초대 받은 이는 복 되도다" 하시는 신부님 말씀에 제 귀가 땡 뚫렸습니다. 매일 미사에서 들던 말씀인데... 그 동안 수없이 들던 말씀이 오늘은 당신의 사랑으로 제 가슴을 적셔줍니다. 사랑하는 주님, 병어리 귀머거리였던 저를 앞으로도 조금씩 고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제 온 마음 다하여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가다가 넘어져도 넘어진 곳에 눈을 두지 않고 당신 있는 곳에 눈을 두고 일어날 수 있도록 저를 도와 주세요. 주님! 찬미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막 발걸음을 시작하는 아기 처럼 뒹뒹뒹 거리며 당신께 가는 저를 지켜봐 주세요. 당신 만날 때까지 예쁜 딸로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당신이 사랑하는 딸로 부터

고리기도의  
은총

## 주님의 수난 24시간 묵상 고리기도의 은총

문 로사리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하느님께서 이미 오래 전에 택하신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만아들이 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 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로마 8,28 - 30).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수난의 시간 - 이인복 마리아 & 심재기 바오로 & 조미현 미카엘라 -공동 번역]이라는 책을 처음 접한 것은 2010년 여름이었다. 이 책을 번역하신 분에게서 선물로 받으신 영적 도반 한 분이 캐나다에서 내게 책을 보내셨다. 그 때만 해도 이 책이 내게는 알려지지 않았을 때였고 사순시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시간이 있을 때 한 번 읽고 묵상해 보아야지....'하고 책꽂이에 꽂아 두었다. 그런데 이것은 하느님께서 은밀하게 계획하신 일의 시작이었다. 그 해 말쯤 미동부에서 연락이 왔다. 수난 기도팀을 만들고 있는데 함께 하자고 하였다. 그 때 나는 재속 프란치스코회원이었고 함께 기도를 하신 분들 대부분이 재속프란치스코회원이었다. 24시간을 한 시간씩 나누어 한시간의 묵상 기도를 한 달 동안 하는 기도를 하자고 하였다. 처음에는 참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루이사 피카레파가 성 안니발레 마리아 디 프란치아 신부님에게 보낸 편지 중....

"만약 적어도 각 마을과 도시마다 몇 명이라도 이 묵상을 하는 영혼이 있다면 하느님의 정의가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지고 징벌이 가벼워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공경하올 신부님! 모든 사람들에게 호소하여 주십시오. 저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제게 허락하셨던 이 작은 사업이 완성되게 해 주십시오." 이 구절에 붙잡혀서 기도를 시작하였다. 북미주 전 지역에서 모두 24명이 모여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만 2년 동안 함께 기도를 했다. 몇 분을 제외하곤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얼굴도 모르지만 기도 시간표를 만들어 매일 한 번씩 이메일을 통하여 기도 시간표를 보내드리고 만 2년이 지난 후 기도를 마치고 수난기도팀은 다시 만날 기약도 없이 흩어졌다.

2015년 2월 말, 남편 토마스가 병원에 입원한지 일주일 만에 갑자기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 유전적으로 당뇨병을 오래 앓긴 했지만 정말 건강관리도 잘했고 중국이나 타주 출장을 자주 가고, 삶과 사업에 대한 의욕도 넘치고 병석에 누운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토하고 어지럽다며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해서 뇌수술 후 깨어나지 못하고 일주일 만에 떠났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본향으로 보낸 상태여서 처음에는 느낌도 없고 남의 일처럼 느껴져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고, 남편 토마스가 사업을 활발하게 하는 중에 갑자기 떠났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로 시간이 지났다. 생명의 주인께서 도로 거둬가셨다고 이해하면서도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며 서너 달이 지나면서 서서히 깊은 불안



## 각 마을과 도시마다 몇 명이라도 이 묵상을 하는 영혼이 있다면 하느님의 정의가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지고 징벌이 가벼워질 것이

과 우울과 두려움에 싸여 눈물의 골짜기를 걸으며 나날을 살아가고 있었다. 머리로 이해가 되고 신앙적으로도 받아들여지지만 도대체 몸이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하여 가슴 속에 커다란 바위가 자리를 잡고 한숨이 나오며, 시도 때도 없이 울음이 터져 나와 운전을 하면서도 흐느끼고, 눈물 때문에 신호등 색깔이 보이지 않기도 했다. 머릿속은 하얗게 되고 삶인지 죽음인지 모르는 상태로 나날을 지내고 있었다. 겉으로 보면 아주 평안하게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주위 분들이 놀랄 정도로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었다. 사무실에도 매일 출근하고, 매일 미사도 가고, 매일 바치던 기도도 변함없이 바치고, 아침저녁 대성무일도 열심히 바쳤지만, 일을 하고, 누구와 만나 얘기를 나누고, 운전을 하고, 밥을 먹어도 내 몸과 마음과 정신은 따로 해체가 되어 뚱뚱 떠다녔다. 누구에게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한다 해도 알아 듣지도 못하고, 오로지 나 혼자 받아 들이고 겪어내야 하는 고통이었다. 삶과 죽음의 경계도 없어지고, 삶인지 죽음인지 도대체 혼란스러웠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칠월 하순 경 캐나다의 영적 도반 한분에게서 연락이 왔다. "수난기도 하자고 동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함께 하실래요?" 좀 부담이 되었지만 함께 하자고 했다. 우리는 3년 전에 한 방식대로 한 시간의 묵상 기도를 한 달 동안 묵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캐나다에서도 수난 기도팀을 모으고 나는 나대로 우리 본당이나 옆 본당에서 (평소에는 별로 가까이 지내지는 않았지만) 조용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 분들에게 일대 일로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기도하자고 하니 거의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다. 대부분 책을 가지고 계셨고, 사순시기 동안에만 수난기도 책으로 기도를 바치시던 분들인데 수난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막연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셨고, 혼자 하고 계신 분도 계셨다. 그래서 시작된 수난묵상 고리기도팀. 3년 전에 이미 기도 시간표를 만들어 매월 이메일로 보내드린 경험이 있었기에 나도 모르게 기도 시간표를 만들어 놓고 있었다. 그런데 캐나다의 자매님과 평화님으로부터 나에게 기도 시간표를 만들 수 있는지 문의가 왔다. 이미 만들어 놓았으니 일단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하니 그대로 올려 달라고 하신다. 그래서 작성하기 시작한 기도 시간표가 처음에는

45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하느님께서는 여기저기서 모아 주셨다. 매일 한 시간씩 옮겨서 24일이면 24시간 전체를 묵상하게 되는 방식으로 두 번을 하였다. 매일 묵상 기도 방식이 두 번 끝날 무렵 내 주위의 많은 분들이 한 시간을 하루 묵상하는 것으로 부족하니 같은 시간을 한 달씩 묵상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하였고 인원도 늘어서 두 팀으로 나누어 기도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두 달이 지나고 있었다.

엿그제 본당에 가니 수녀님께서 내게 일부러 오시어 물어 보신다.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너무 밝아지고 예뻐졌어요." 나는 원래 치장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예쁜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수난기도를 하고 시간표를 올리면서 거의 [매일 묵상 수난기도] 팀과 [한 달 묵상 수난기도]팀과 함께 하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과는 통화도 하고 설명도 하고 책도 보내드리다 보니 내가 정말 활기차고 기쁘게 살고 있었다. 정말 슬퍼할 틈도 주지 않고 얼마나 바쁘게 만드신는지... 주님께서 내가 졸지에 남편을 잃고 슬픔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시다 못해 끌어내시는 방법으로 수난기도를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시 수난기도를 하면서, 3년 전에 2년 동안 할 때 느끼지 못했던 감동이 새롭게 나를 휘감고 있다. 매일 한 시간여씩 수난기도와 루이사 피카레타의 글에 잠겨 있다 보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른다. 카톡으로 연결된 수난기도 식구들의 체험과 아름다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나누면서 하느님의 나라를 미리 체험하고 있는 것 같다. 아니 이미 하느님 나라 안에서 거닐고 있다. 세상이 아무리 황량한 벌판 같고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어도 우리를 위해 수난하신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총을 생각하고, 이 은총의 시간들을 함께 하도록 수난기도팀을 불러 모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은총의 때요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순간임을 느낀다. 함께 기도하도록 불러 주신 하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수난기도 식구들에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사랑과 감사를 드린다. 주님 수난 묵상 고리기도팀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럼습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그 어느 날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메주고리에 목격증인들이 전하는 연옥

**비스카 :** 메주고리에 목격증인 비스카에 의하면 연옥영혼들은 전적으로 지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에 의해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 연옥영혼들은 연옥에서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며, 특히 지상에서 살면서 가족에게 버림받은 영혼들은 힘이 없으므로 매우 약하다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지상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연옥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하셨다고 전한다.

"아무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지 않는다. 그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기도와 보속이 필요하다. 지상에 사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는 연옥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비스카에게 주신 성모님 메시지)

**미리야나:** 성모님과 함께 연옥에 가 본적이 있으며 그곳은 실제로 있는 곳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연옥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미리야나는 "사람들이 떨어져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미리야나는 우리가 연옥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들이 우리를 볼 수 있다고 하며, 연옥영혼의 고통에는 단계가 있음을 묘사하기도 하였다. 천국에 가까운 영혼들은 상대적으로 쉽고 가장 덜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 거의 기도를 받지 못하는 영혼들과 기도의 기쁨을 알지 못했거나, 기

도를 해 본적이 없는 영혼들이 가장 힘든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

**이반 :** 이반은 성모님께서 연옥영혼을 위로하러 가시는데, 그것은 연옥영혼들의 외로움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가족중에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셨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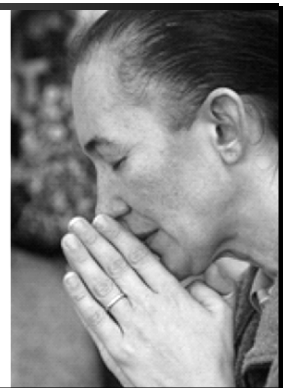
"연옥에는 많은 다른 단계가 있다. 가장 낮은 단계는 지옥에 가깝고, 점차적으로 가장 높은 단계는 천국에 가깝다. 가장 많은 연옥영혼이 천국에 가는 날은 위령의 날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이다. 연옥에는 하느님께 열렬한 기도를 드리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친지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상에서 기도해 주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이 다른 사람의 기도로서 유익을 얻도록 허락하신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지상에 살고 있는 친지나 친구들에게 여러가지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연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정의로우시고 완전한 선이신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기도를 간청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옥을 가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간다. 아주 적은 사람들만이 곧바로 천국에 간다." (1983년 1월 10일 성모님께서 주신 말씀)

( Followthissite.com에서 )



"성모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것은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가 매일 꽃에 물을 주고 가꾸듯이 조금씩이라도 매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이 성모님께서 오랫동안 메주고리에 발현하시는 이유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가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연옥 영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아무 것도 할 수 없기에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 메주고리에 발현 목격증인 비스카의 체험담에서 -





# 연옥 영혼들을 위한 기도와 미사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가, 매일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너희를 부르고 싶다. 모든 영혼은 하느님과 그분의 사랑에 이르기 위해서 기도와 은총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연옥영혼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너희는 새로운 전구자들을 얻게 된다. 그들은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세속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너희가 얻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은 오직 천국뿐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너희를 도와 줄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너희 기도를 통해 기쁨을 누리게 될 사람들을 도와 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1986년 11월 6일 성모님 메시지)



**질문:** 연옥영혼에게 인도해 달라고 청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 우리는 연옥영혼에게 영적으로 이끌어주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좋은 영적지도사제를 만나고 싶을 때, 우리는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연옥에서 온 영혼이 이러한 일에 대하여 말해주었습니다.

**질문:** 연옥영혼이 우리의 자유의지에 개입해서 위험에서 도와주는 때가 있습니까?

**마리아:** 네. 그럴수 있지만 긍정적인 면에서만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우리가 빠른 속도로 운전을 하면서 병을 잡으려하다 위험한 상황이 닥친 순간 연옥영혼이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자가 담배를 끊으려 할때, 혼자 시도하는 것보다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 더 쉽게 끊을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 보지요. 우리는 죄에 약하므로 어떤 성향에 기울어져있을때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속하는 어떤행동을 왜곡하고 포장하여 좋고 괜찮은 것이라고 자신을 스스로 속입니다. 우리는 오직 천국에서만 온전히 순수하게 절대 선이신 하느님께만 향하는 자유를 갖습니다.

**질문:** 연옥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 오, 정말 그렇습니다. 훨씬 많이 도와주지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우리를 찾아 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매우 빨리 전해집니다. 기도가 몹시 필요한 연옥영혼들은 자신들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많은 것을 합니다. 저는 특별한 것을 부탁할때 "이것, 혹은 저것을 도와주면, 다음 주에 제가 당신을 위해 미사를 더 봉헌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도와주지 않는다면 미사는 없습니다." 하는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찌면 하느님과 협상을 하거나 도전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기도가 시간이나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의 의도가 참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연옥영혼들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측정될수 없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연옥영혼들이 매우 빠르게 당신의 기도에 응답한다는 것을 느낄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연옥영혼이 잃어버린 물건도 찾아줍니까?

**마리아:** 네. 저는 좋은 예를 하나 가지고 있죠. 2년전에

## 연옥영혼들이 매우 빠르게 당신의 기도에 응답한다는 것을 느낄수 있을 것입니다.

임마누엘 수녀님이 메주고리에의 목격증인인 비스카와 함께 강연을 하기 위해 프랑스에 갔었습니다. 물론 여행은 매우 시간에 쫓기고 정신이 없었죠. 수녀님의 작은 가방에는 프랑스에서 숙박료 및 그외 여비를 지불할 돈이 들어 있습니다. 수녀님과 비스카는 같은 방에 묵었는데, 그 다음 강연을 위해 떠나기 몇 분 전에 가방이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수녀님은 전 날 그 가방을 어디에 두었는지 정확히 알았지만 수 천명이 비스카의 강연을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출발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방을 떠나기 전 수녀님은 집 주인에게 그 가방에 이번 여행에 쓸 경비가 있으니 꼭 찾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비스카와의 선교여행은 계속 되었지만 가방을 찾았다는 연락은 없었습니다. 비스카는 독일로 계속 여행을 하였고 임마누엘 수녀님은 메주고리에로 돌아왔습니다. 수녀님은 큰 책임감 때문에 메주고리에에 도착하자 연옥 영혼에게 다음과 같이 청했습니다. "그 가방을 찾아주면 9일 동안 당신들을 위해 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채 3일도 지나지 않아 프랑스에서 묵던 집주인이 보낸 편지가 메주고리에로 왔습니다. "방금 당신의 가방을 찾았습니다. 돈은 가방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가방은 당신이 떠나기 전날 보았다고 했던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9일 동안의 미사로 인해 많은 영혼이 천국에 갔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나중에 수녀님이 저를 찾아와서 연옥영혼에게 그 일에 대해 물어봐 달라고 요청할 때 알았습니다. "비스카가 프랑스 선교여행할 때 제가 잃어버린 가방을 연옥영혼이 찾아준 것입니까?" 몇 달 후 "그렇습니다." 라는 대답이 왔습니다.

**질문:** 잃어버린 가방이 하룻밤사이에 원위치로 되돌아가는 일이 가능합니까?

**마리아:** 하느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는 연옥영혼이 그 도둑의 무의식 속에 가방을 도로 제 자리에 돌려 놓으라고 속삭였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 착한 도둑의 무의식의 마음을 억압하여 견딜 수 없도록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몰래 그 집에 들어와 정확하게 있던 자리에 가져다 놓았을지는 미스테리입니다. 아니면 그가 마음대로 그 집을 드나들 수 있는 처지였을까요? 어떤 이유에서든 임마누엘 수녀님은 연옥

영혼들을 위해 9일 동안 미사를 봉헌했고 그들은 도움을 청하는 수녀님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했겠지요.

**질문:** 그 밖의 연옥영혼들이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까?

**마리아:** 우리의 상상력이 거룩하고 선한 것인 한, 한계 내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결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돕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도움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연옥영혼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성모님을 통해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좋은 것 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계획은 우리의 것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연옥영혼의 도움으로 얻은 평화는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므로 바로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건널목에서 파란불이 들어와 길을 건너고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저쪽에서 차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운전자가 즐고 있다는 것은 모릅니다. 이럴때 연옥영혼은 당신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운전자를 얼른 깨워서 차를 멈추게 합니다. 당신은 목숨을 건졌지만 그 상황은 전혀 모릅니다. 연옥영혼들은 그렇게 자주 우리를 위해 일합니다만, 우리가 그런 일들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질문:** 연옥영혼들이 정신적, 육체적인 도움외에 다른 도움을 준 이야기가 있습니까?

**마리아:**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여인이 매달 연옥영혼을 위해 미사를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매우 신심이 깊고, 겸손한 이 여성은 큰 집의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직장을 잃게 되었고, 그 후





새로운 일을 찾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어느날, 미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그 달의 미사 예물을 내지 않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날 미사 예물을 내면 당장 며칠 동안 살아야 할 생활비가 한 푼도 없어서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금새 다시 예수님께 의탁하며 그분이 절대로 자신을 내버려두지 않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평상시처럼 연옥영혼을 위한 미사를 청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교회를 나섰을때 그녀는 잘 차려입은 멋진 신사를 만났습니다. 그 신사는 그녀가 일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그 사람이 알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어떤 길로 가서 오른쪽에서 3번째 집을 두드리라고 친절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신사가 알려 준대로 길을 가면서도 여전히 의아했습니다. 그녀는 쉽게 그 집을 찾을수 있었고 몹시 마음에 들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매우 친절한 나이든 할머니가 나왔고, 자신은 가정부를 한 경험이 있고 일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노인은 매우 기뻐하며 안으로 들어 오라고 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금새 필요한 일에 대해 기쁘게 동의하였고 서로 몹시 필요한 것을 찾게 되어 안심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가정부는 크고 고급스런 거실을 둘러 보다가 벽난로 위에 있는 액자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좀 전에 교회 앞에서 그녀에게 집을 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물었습니다. "마담, 이 사진속의 신사분이 누구신지요?" "오., 그건, 내아들 헨리인데 4년 전에 죽었다오."

**질문:** 연옥영혼에게 좋지 않은 일을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 그러면 안됩니다. 만일 어떤사람이 나쁜 의향으로 도움을 청하고 받았다면 그것은 연옥영혼이 아닙니다. 사탄들은 나쁜 의향인 줄 알고도 도와주지만 그 응답은 오직 거짓일 뿐입니다.

**질문:** 연옥영혼에게 도움을 받고 또다시 부적절한 도움을 청한 경우를 알고있습니까?

**마리아:** 네. 어떤 사람이 차 사고를 당하는 순간 세 연옥영혼들이 운전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들이 당신을



도와 주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확실히 돕고 있었기 때문에 차가 공중에 떴다가 뒤집혔는데도 그 사람은 상처 하나 없이 차에서 나왔습니다. 연옥영혼이 죽음에서 자신을 구해 준 것이 확실하자 그는 보험서류 처리에도 연옥영혼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들을 위해 미사를 드렸고, 도와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에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곤란한 상태가 됐을 때, 그 사람은 연옥영혼들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왜 그들이 자신을 돕지 않았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가 보험 회사에 사고에 대한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 보고를 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옥영혼들이 도와 줄 수 없었습니다. **M**

<마리아 심마의 "get us out of here" 에서>

## Queen of Peace Missionaries

www.qpmm.org / E-mail: qpmm.org@gmail.com

Tel : (201) 945-4777 / CP (917) 626-4314 카톡 평화

발행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행/편집인 : 박창득 몬시뇰  
 지도신부 : 박창득 몬시뇰 (뉴왁대교구)  
 자문위원단 : 김한기 신부,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이종하 신부, 백남국 신부, 웨인 와이블  
 웹관리자 : 박 어거스틴  
 편집위원 : 남 미카엘라, 김성주, 이 데레사, 최 레지나

미국 P.O. Box 843, Ridgefield, NJ 07657

한국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1동 719-2 백상 프라자 109호

캐나다 1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메주고리에  
열매

## 마약 중독자가 가톨릭 사제가 되다!

필립 파비치 신부(체나콜로 공동체)

찬미 예수님! 메주고리에 세계 청소년 축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정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 즉 새로운 출발은 힘든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 중에도 모세는 열정적으로 하느님께 의탁해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며 축복과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지만 그들은 "차라리 이집트에서 속박받는 노예로 살더라도 잘 먹고 편하게 살면 좋을 걸..." 하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예수님의 길,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일은 하느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그들이 먹은 만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사랑의 표징이고 약속이었습니다. 그 여정의 변화와 회개는 바로로 사도가 말한 낡은 옷을 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참된 양식이다! 표징이 아니라 성부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빵! 너희의 구원을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여러분은 이 위대한 신비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잠시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작은 빵조각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늘 가는 성당 감실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사제가 미사 중에 성체를 축성할 때 하느님의 외아들이 빵으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사제로서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성체 앞에서 우리 삶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음과 신앙 안에서 끌어안고 의탁하고 있는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메주고리에에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성체 앞에서 예수님, 당신이 정말 이 빵 안에 살아계십니까? 하고 물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빵이 되셨다는 것과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이것을 굳게 믿고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학자 교수님들도 설명하기 힘들어 하는 것이 바로 성체성사의 신비입니다. 컵으로 바다의 물들을 다 담을 수 있습니까? 바다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성체의 신비를 유리컵 하나에 지나지 않는 우리들의 좁은 마음 안에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담아 낼 수가 없습니다! 담으려 할 때 이것은 사라져 버립니다.

한가지 더 있는데 바로 마음의 체험입니다. 우리들의 이성과 지능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할 때 지능은 무능으로 빠집니다. 2005년 로마 교황청에서 체나콜로 공동체 창설자 수녀님을 시노드에 초대했습니다. 우리들은 그 말을 듣고 농담하는 것 같아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세계 주교님들이 모여서 성체의 신비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는 시노드에 단순하고 보잘것 없는 늙은 엘비라 수녀님을 초대할 수 있을까? 저희는 정말 놀랐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주교님들과 추기경님들은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체험한 굳건한 믿음에 관해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엘비라 수녀님은 세상에서 길을 잃었던 젊은이들을 위해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살아 온 당신의 성체 신비의 체험담을 나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심리학자들, 정신과 의사들은 마약과 헤로인에 절은 그 젊은이들에

## 모든 근심 걱정들을 어머니께 드리고 예수님께 봉헌해 달라고 기도하여라.

게 새로운 삶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녀님은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공허한 삶을 살던 젊은이들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주교님들은 바로 그런 믿음이 있는 수도자를 초청한 것입니다. 엘비라 수녀님은 하느님께서 주신 빵, 만나가 이 젊은이들의 공허한 삶과 아픔들에서 해방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수도자였습니다. 세상에서는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지만 수녀님의 믿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체나콜로를 창설한 수녀님의 체험담입니다. 저는 확신보다는 진실된 마음의 체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각자 다른 방법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체험을 꼭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가톨릭교회의 사제이지만 성체의 신비를 말로는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헤로인과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었지만 가톨릭 사제가 되었습니다! 가족과 이웃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악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저는 사제로 거듭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톨릭 사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이집트 노예생활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 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관해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바로 성체 안의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 때문에 마약과 알콜에 중독되어 악령과, 사탄의 노예였고 죄의 사슬에 끌려 다니는 피에로였던 제가 사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살아계신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불가능했던 일들이 성체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가능해졌습니다. 성체 앞으로 갈수록 서서히 저는 변화되었습니다.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과정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변화와 회개를 성체의 기적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체나콜로 공동체에 살고 계신 모든 회원들은 성체 기적 그 자체입니다. 제 자신이 바로 성체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하느님께서 살아계시

며, 성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성심은 가톨릭의 심장이며 교회의 심장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장 핵심이 예수님의 성체이며 중요합니다. 만약 성체가 우리 교회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대단한 의미를 소홀히 한 큰 죄입니다. 체나콜로 젊은이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비천한 젊은이들입니다. 이 천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지었던 죄들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듯한 이 젊은이들, 하지만 성체의 힘이 결국 그들을 일으키고 또 일으켜 세워서 빛으로 가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에도, 어려운 시기에도,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성체의 빛은 우리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 이 강론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생각하면서 저를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초대해 주신 슬라브코 바르바로치 신부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꼭 들려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지치고 삶에 의욕을 잃고 산송장처럼 건들거리며 체나콜로 공동체를 찾아 왔을 때에 소성당에서 성체에 관해 언급하시는 슬라브코 신부님을 보았습니다.

그 후 저도 가끔씩 줄면서 30분 정도 예수님 앞에 묵상하곤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그저 그 앞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공동체 젊은이들에게 단식과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셨을 때 공동체 회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더 이상 성체조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분심들이 절 괴롭히고 너무나도 많은 생각들이 몰려와서 집중을 못합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에 대한 생각, 여기저기 많은 생각들 때문에 힘들어서 성체조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침묵 중에 성체 앞에 앉아 있을 때에 많은 생각들의 방해로 집중이 안돼서 그저 멍청히 앉아 있을 뿐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느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신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 그것들이 너를 집중할 수 없게 만든다면 그 모든 것들이 네 기도의 요소가 되게 하면 된다." 신부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들을 기꺼이 제 삶 안에서 실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순간 네가 기도해야 할 요소들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네게 그것을 원하셔. 성당에 가면 먼저 모든 근심 걱정들을 어머니께 드리고 예수님께 봉헌해 달라고 기도해라. 성체 조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성모님께 드리면



그것들이 네 기도의 주제가 될거야. 성모님의 손으로 예수 성심께 봉헌하고 아무 걱정도 하지마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 말들이 얼마나 저의 삶을 평화롭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엔 모든 안개가 걷히고 그때까지 저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에서 해방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봉헌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체 신비에 대한 믿음이 마음 안에 들어 왔습니다.

2013년 성령강림 대축일 전날베드로 대성당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성령쇄신 공동체와 단체들과 수도회 사람들에게 새로운 복음화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성체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새로운 복음화가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많은 회의, 또는 많은 계획이나 연설, 세미나, 공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체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체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무리 지치더라도 소성당 감실에 계신 예수님께 갑니다. 너무나 피곤해서 감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고 그 앞에서 잠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제 마음은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그분께서 저를 바라보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저를 바라보실 때에 모든 것은 평화롭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저는 교황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꿈, 그리고 이상을 성모님과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 나가십시오! 성체 앞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과 함께 그 꿈을 실현하면 그분께서 여러분들 인생의 빵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어제 런던에서 오신 신부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메주고리에 순례를 온 이유는 마약 중독자에서 사제가 된 신부님의 자서전을 읽고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런던은 지금 너무나 많은 마약 중독자들 때문에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신부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말을 할지 고심하다 먼저 무릎을 꿇고 성체조배로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성모님의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한다면 런던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될 것을 믿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상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성체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겸손하게 그분을 따라가고 말씀을 들읍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절대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우리와 예수님의 만남을 위해 이땅에 오셨습니다. 성체 안에 살아 계시는, 그분께서는 우리를 도와 주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빵이신, 그분께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 World Youth Day

2016 세계청년대회

Krakow, Poland July 24th - August 2nd. 2016.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shall obtain mercy" (Mt 5,7)



**참가비** : \$2,550 (1인)

**접수마감** : Dec. 1, 2015

**Deposit** : \$850

마감 후에는 \$100 추가 및  
항공요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도사제** : 조민현 요셉 신부

**문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917-626-4314

201-945-4777

**9박 10일 일정표**

\* 자세한 내용은 Flyer 참조

일정	일정
7월 24일	JFK 공항 출발
25일	폴란드 Krakow 도착
26일	야스나 고라 수도원 - Black Madonna, 청년대회 개막식, 문화행사
27일	파우스티나 성녀 성지 방문
28일	교황님 알현
29일	십자의 길, 고백성사
30일	Camp Out
31일	교황님 미사
8월 1일	콜베신부님 박물관, 아우슈비츠 방문, 성 요한 바오로 2세 생가 박물관
2일	도착

## 미동북부사제협의회

Organized by Northeast Korean- American Priest Association

## 사랑하는내 아들 죠이

펜실바니아 주 스프링필드에 있는 돈 과넬라 학교는 장애아들에게 숙소와 교육을 제공하는 곳이다. 이곳에 있는 75%는 가족관계가 극히 제한되거나 혹은 전혀 없는 이들도 많다. 이곳에서 죠를 만나 입양한 폐기 새퍼는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며 그를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다. - 편집자 주 -

### 폐기 새퍼

최근, 어느 혼배미사의 강론에서 신부님은 기도 모임에서 맺어진 우정이 더 깊고 진솔한 사랑의 관계로 발전하여 그들의 가족과 교구,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으로 하나가 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말씀하셨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각자의 러브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믿는다. 우리 아들 죠이와 나, 그리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하느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다. 내가 펜실바니아 주 스프링필드의 돈 과넬라 학교 기숙사에서 일하고 있던 1982년 9월 어느 아름다운 날이었다. 중증 다운신드롬을 앓고 있는 12살 난 소년이 돈 과넬라 학교 기숙사에 들어왔다. 죠라는 이름의 소년은 기숙사에 들어오더니 아무 말도 없이 곧장 나에게 와서 내 무릎에 앉았다. 나는 얼떨결에 그 소년을 품에 안아 주었다. 나는 조용히 내 품에 안겨 있는 죠가 손에 꼭 쥐고 있는 사진을 보고 갑자기 내 심장이 쿵쿵 뛰며 가슴이 마구 설레었다. 왜냐면 죠가 갖고 있는 그 상본은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성심과 똑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우연이라고 말 할 수도 있을까... 나는 얼마 전부터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 성심께 9일 기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예수님께서 죠를 나에게 보내셨음을 즉시 깨달았다. 이것이 지금은 내 아들이 된 죠라는 소년



과 나와 의 첫 번째 만남이었다.

중증 다운신드롬을 갖고 태어난 죠는 즉시 엄마에게 버림받았다. 금발의 작은 소년 죠는 매우 심한 장애로 말을 못했다. 기숙사에서 살면서 친구가 필요했던 죠는 나와 매우 친해졌다. 돈 과넬라 학교 기숙사의 가족이 된 죠는 매 주말마다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좋아했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것은 죠가 처음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원했던 것은 벽에 걸려 있는 예수 성심상본이었다. 그 상본은 내가 9일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나도 어렸을 때부터 성당에 있는 예수 성심을 무척 사랑했었다. 죠와 내가 같은 것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다. 나는 예수님께서 죠를 내게 보내셨음과 그를 위해 내가 할 일이 있음을 조금씩 깨닫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죠와 나를 예수 성심에서 하나로 묶어 주시기를 위해서 사랑의 불꽃을 내려주셨음을 믿는다.

몇 년 후, 죠이가 (더 이상 죠가 아니다) 돈 과넬라 학교 성당에서 세례를 받을 때 영광스럽게도 내가 대모가 되었다. 나는 그날 몹시 흥분에 들떠 있었던 죠이의 모습을 평생 잊을 수가 없다. 죠이가 14살 때, 첫 영성체를 했



##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다. 처음에는 웬지 망설이던 조이는 바바라 수녀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첫 영성체를 모실 수 있었다. 이후, 조이가 돈 과녘라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7년의 세월은 너무나 빨리 지나갔다. 조이는 선생님들, 청년 상담원들, 봉사자들, 직원들, 친구들, 신부님들, 그리고 수사님들의 사랑과 도움을 받으며 영육간에 성장해 갔다. 그동안 조이와 나는 서로에게 더욱 특별한 관계로 더욱 가까워졌다. 그 후 2년 동안 조이는 사회성과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자립심이 더욱 늘어났다. 조이는 개를 산책시키는 일, 미니골프, 댄스, 음악 감상 및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일등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어린아이를 돌보는 일을 매우 좋아했고 자주 그들과의 놀이에 참여 하려고 노력했다. 틴 에이저들은 조이의 우상이었다. 조이가 21살이 되서 돈 과녘라 학교를 졸업하면 두 가지 중에 한 진로를 선택해야 한다. 첫째는, 중증장애인들의 공동체로 보내는 것이고, 둘째는, 그를 돌보는 포스터 케어 가정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지난 여름, 많은 기도와 노력 끝에 9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들이 조이를 방문했다. 그것은 매우 아름다운 재결합이었다. 조이와 가족들이 만날 때 그 곳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았다. 그 후 3개월 만에 조이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장례식에 참석한 조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모든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받아 들였다. 조이의 보호자이자 대모로서, 내가 할 일은 조이에게 안전한 가정을 제공하고 미사에 참석해서 성체를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하느님과 내가 그의 특별한 삶에서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언제나 신뢰하고 깨닫도록 하는 일이다.

1991년, 잔 맥파든 신부님과 함께 아일랜드로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있었다. 조국을 처음 방문하는 어머니의 75세 생신을 기념하여 나도 함께 참여했다. 우리는 그곳에서 성모님께서 두 젊은이들에게 발현하시는 장소들을 방문했다. 나는 그 때 자비심의 기도를 처음 바쳤다. 순례의 마지막 밤에 철야기도를 하고 새벽 3시경 잔 신부님에게 고백성사를 보았다. 그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특별한 체험의 영적 고백성사였다. 순례 후, 집에 왔을 때, 나는 조이가 마지막 학년을 마치고 지난 8년간 생활했던 학교 기숙사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조이가 머물 가정이



펜실베이니아 포코노에 있는 잔 신부님의 경당

정해질 때까지 당분간 내가 조이를 돌보게 되었다. 나는 성지순례서 받은 은총의 힘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까지 조이의 대모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용기를 얻었다. 1992년 10월 13일, 조이와 함께 생활하던 나는 조이를 내가 돌보아야 한다는 결심을 하고 입양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족들의 동의를 얻는 일은 쉽지 않았다. 입양에 대한 법적 진행이 자꾸 지연되고 있었지만 조이와 나의 신뢰는 점점 더 깊어졌고 결정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동안 우리는 메주고리에, 아일랜드, 루르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2013년 5월에는 잔 신부님과 함께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서 주관하는 메주고리에 성지 순례를 갔다. 조이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준다. 성모님께서 현존하시는 그곳에서 조이와 나는 무척 행복했다. 성모님께 헌신하고 있는 남그레고리오와 잔 신부님, 케터린 수녀님, 일행들의 배려와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성모님께 내 려놓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다.

2014년 1월 27일, 그토록 오랫동안 지연되던 입양이 법적으로 허락되어 드디어 조이가 내 아들이 되었다! 조이를 '내 아들' 이라고 부르고 조이가 나를 '엄마' 라고 부를 때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다. 조이를 사랑하고 함께 있는 것이 행복했지만 '내 아들'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 아팠기 때문이다. 조이는 포코노에 가는 것을 무척 즐거워한다. 조이는 포코노에 있는 경당에 가면 잔신부님 의자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 말을 못하지만 마음속에는 사제에 대한 거룩한 동경심이 많은 것 같다. 매달 하는 성모송 1000번 봉헌 기도회와 미사에 참여하는 것도 무척 좋

아한다. 조이는 혼자서 묵주기도를 못하지만 묵주를 좋아해서 꼭 손에 들고 다닌다. 조이의 손을 잡고 묵주알을 하나씩 넘기며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줄 때 우리는 무척 행복하다. 조이는 몇 시간씩 하는 성모송 1000번 기도회도 지루해 하지 않고 끝까지 참석한다. 조이와 함께 한 세월들이 어느덧 32년이 흘러서 내 나이 68, 조이는 44살이다. 조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게 자주 묻는다. 내가 없으면 조이는 어떡하느냐고... 그러나 그것은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조이를 내게 보내주신 거룩하신 예수성심과 성모님께서 그 다음 일도 준비하고 계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허락된 시간들에 감사드리고 기쁘게 살아 갈뿐이다.

#### 세상 걱정과 하느님의 나라 (마태오 6,25-34)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26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

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 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27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28 그리고 너희는 왜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30 오늘 서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31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32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33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34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

### 2015년 10월 2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시는 성모님 메시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는 여기, 너희들 가운데에서 너희가 사랑으로 채워지도록 용기를 주고 있으며, 너희가 다시 새롭게 나의 아들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자가 되도록 너희를 부르고 있다. 많은 나의 자녀들이 희망이 없고, 평화가 없으며,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 그들은 나의 아들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어디서 어떻게 그분을 찾아야 할지 알지 못한다. 나의 아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팔을 넓게 벌리고 계시니, 그들이 그분의 품안으로 갈 수 있도록 너희가 그들을 도와주어라.  
나의 자녀들아, 그러기에 너희들은 사랑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너희는 더욱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많이, 아주 많이 기도해야 한다.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삶을 지속시키기 때문이다. 나의 자녀인 사랑의 사도들아, 내가 그러한 것처럼, 너희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용기를 주어라. 나는 너희를 바라보고 있으며 너희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함께 있다. 너희의 목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의 아들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을 위해 기도 하여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여라. 하느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고맙다."



발현 목격증인 미리아나



## 메주고리에 성지순례의 아름다운 추억

92차 성지순례자 로렌

어느 날, 친구에게 잔 맥파든 신부님의 마지막 메주고리에 성지순례에 함께 가자는 초대를 받았다. 잔 신부님은 1983년 메주고리로 오라는 성모님의 부르심에 최초로 응답한 미국 사제이다. 어머니날 다음날인 5월 11일, 남편과 나는 평생토록 가보고 싶었던 메주고리로 성지순례를 떠났다. 우리의 복되신 어머니께서 지난 33년 동안 발현하고 계시는 메주고리로 신앙여정을 떠난 것이다. 이번 순례여정에 초대 받자마자, 나는 성모님께서 더 깊은 믿음을 주실 것을 믿으며 즉시 "네"라고 응답했다. 왜냐하면 지난 7개월 동안 두 번이나 수술을 받은 후부터 언덕을 올라가기는 커녕, 걸을 수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평범한 일상생활의 삶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긴 싸움을 하고 있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번 순례 여정을 떠나야 한다는 것, 믿음... 성령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건강을 회복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남편도 내 건강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곧 바로 "네"라고 응답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하자, 잔 신부님과 순례의 인솔자인 그레고리오는 비행기 안에서 수면을 취할 것을 권했다. 나는 수면제를 먹고 잠을 청했지만... 현실은 그 모든 것을 봉헌해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처음부터 나는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하느님의 은총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시간에는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 비행기를

갈아타고 사라예보 공항에 도착했다. 메주고리로 가는 버스 안에서 누가 부드러운 소리로 부르는 이사벨의 노래 소리를 들으며 잠시 동안 우리가 천국에 있다는 생각을 했다.

**제1일 - 화요일:** 우리는 발현 초기에 성모님께서 발현 하였던 비스카의 집을 방문했다. 지팡이들을 손에 들고 발현산을 올라가는 길은 돌투성이의 험한 길이었다. 오르는 길 중간에 환희의 신비가 새겨진 청동판이 있었다. 우리는 각 처마다 함께 묵주기도를 봉헌하고 묵상하면서 올라갔다. 나는 어디를 디뎌야 할지 온 정신을 아픈 발을 받쳐줄 수 있는 돌에 집중하면서 "예수님 성모님, 제가 이 산을 올라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라고 기도 했다. 하느님께 나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내 손을 잡고 가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이번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기도 하면서 산을 올라갔다. 식사 시간 중에 순례 인솔자인 미카엘라가 테이블을 돌면서 바구니 안에 있는 성모님 메시지를 하나씩 뽑으라고 했다. 저녁식사를 마친 후, 성당 뒤의 대규모의 야외 제대에서 성체를 현시하는 성시간에 참석했다. 끝날 때쯤 하늘을 바라보니 아름다운 밤하늘이 우리를 덮어주고 있었다. 너무나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별들은, 이번 순례가 나에게 의미있는 체험과 축복이 되리라는 희망의 표시로 다가왔다.



제2일 - 수요일: 새벽 4시경, 남편과 순례자 중 4명이 십자가산을 오르기 위해 호텔을 떠났다. 그곳은 발현산보다 몇 배나 큰 산이었는데 산 정상에서 해돋이를 볼 계획이었다. 올라가는 중간 중간에는 십자가의 길이 있었다. 4시간 후 일행들이 아침식사에 맞추어 호텔로 왔다. 미카엘라가 오늘도 성모님 메시지가 담긴 바구니를 건네주며 받은 메시지들을 묵상하기를 권했다. 아침에는 버스를 타고 강가에 위치한 작은 마을 슈르만치에있는 자비심의 성당을 방문하였다. 차 한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위험한 길과 산기슭에서조차 하느님의 현존하심을 느끼게 해주었다. 강물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운 녹색을 띠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모든 피조물들 안에 현존하심을 보고 깨닫는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마을 구경도 하고 우리 일행 혹은 다른 순례자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잔 신부님이 경당에서 미사를 드리셨다.

다음 순례 목적지는 엘비라 수녀님이 설립한 체나콜로 공동체인데 마약에 중독된 18세 이상의 남성들을 위한 공동체이다. 이곳은, 신앙안에서 강하게 성장하고 지난 삶의 악습들을 제거하기 위해 기도와 노동으로 생활하는 신심 공동체이다. 두 명의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아버지이고, 가장이신 하느님과 함께 가족처럼 기도하고, 믿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서 변화되는 자신들의 체험담을 들려주었다. 두 명중 나이 많은 사람은 돈이라면 아쉬울 것 없었던 미식축구 선수의 아들이었다. 그는 대학교에서 훌륭한 선수가 될 수도 있었으나 모든 것이 만족하지 못했고 결국은 마약 중독에 빠져 모든 것을 잃었다. 32살인, 그는 체나콜로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기도와 믿음의 생활 안에서 평화를 배웠다고 말했다. 그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사람은 부모가 훌륭한 직업을 가졌고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 대부분을 방에서 비디오 게임

을 하며 아버지 얼굴을 보지도 않으며 지냈다. 사랑의 가족관계를 모르는 그를 불량한 친구들이 한 패거리로 끌어들이면서 그는 마약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체나콜로에서 분노를 삭이고, 기도를 배우는데 꽤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그는 이제 신앙 안에서 많은 성장을 하였으며, 믿음과 기도로 변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후 늦게 우리는 발현 목격증인 이반의 체험담을 들었다. 그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인간과 하느님, 그리고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평화로 연결시켰다. "성모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당신들이 강하면... 교회가 강해질 것입니다. 가족기도를 하십시오. 오늘날 가정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가족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모님은 우리의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모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지금 어려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로 돌아오십시오, 하느님께 돌아오십시오, 낙태 때문에 성모님께서 많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은 많이 하십시오. 성모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 오십니다. 목주기도를 바치고, 성경을 읽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느님을 위하고, 기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매일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총이 주어집니다. 성모님은 살아 있는 표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평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한 달에 한번 고백성사를 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자주 영성체를 하십시오. 사제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신을 봉헌하고 기도하십시오. 당신들의 교구내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잔 신부님이 사랑의 불꽃 기도 카드를 축







복해 주셨다.) 저녁에는 성 야고보 성당 뒤의 야외 제대에서 봉헌되는 미사에 참석했다. 하늘을 쳐다 봤을 때, 구름의 왼쪽과 야외 행사장 오른쪽에서 수 많은 천사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천사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해주신다는 느낌이었다. 미사 후, 우리는 호텔에서 저녁을 먹었다. 풍성한 빵과 홈 메이드 와인, 맛있는 야채 샐라드, 멋진 순례자 일행들, 그리고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주는 호텔 종업원들의 서비스 등 훌륭한 저녁 식사였다. 저녁을 마친 후, 그레고리오가 메주고리에 성시간 음악봉사자인 바이올리니스트 멜린다를 초대했다. 우리는 호텔 커뮤니티 룸에 모여서 그녀의 특별한 연주를 들으면서 은혜로운 저녁시간을 가졌다. 그것은 너무나 훌륭하고 은혜로운 연주였다.

제3일 - 목요일: 오늘 우리는 이른 아침식사를 하고 버스를 타고 고아원으로 가서 목격증인 비스카가 전하는 성모님의 메시지와 천국, 지옥, 연옥에 대한 체험담을 들었다. 버스 20여대와 1천여 명의 순례자들이 한여름 땀벌에도 불구하고 돌이 깔린 마당에서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35분 정도 성모님 메시지와 체험담을 전한 비스카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는 미소를 띠었다. 비스카는 순례자들을 보며 가끔 손을 흔들고 손 키스를 보내면서 열정으로 꺽충꺽충 뛰기도 했다. 놀라운 기쁨으로 활짝 미소짓는 그녀를 보는 것은 엄청난 기쁨이었다. 이번에 비스카의 증언을 듣게 된 것은 큰 축복이었다. 그녀가 약 45분 정도 침묵기도를 할 때 하늘을 올려다보니 왼쪽의 구름이 성모님 모습으로 보였다. 가까이 오시는 성모님 팔에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계셨다. 나는 성모님께서 "어린 아이를 받는 것처럼, 아기 예수님을 받아라,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과 모습을 더 많이 닮도록 아기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서 자라나시게 하여라. 갓 태어난 아기를 보고, 안아주고, 웃고 노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내가 아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사랑하여라. 아기 예수님이 너의 아기인 것처럼 안아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다. 이 순간은 나에게 매우 감동적이며 가슴 뭉클한 순간이었다. 나는 이 느낌을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이 때의 체험을 보물처럼 영원히 소중하게 간직할 것이다.

일행들이 호텔로 가려고 버스로 돌아왔을 때, 그레고리오와 미카엘라가 와서 비스카가 우리와 사진을 찍겠다고 하니 신속하게 모이라고 말했다. 일행들이 모두 흥분해서 서둘러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전 그룹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는 비스카를 기다리면서 성모님 노래를 불렀다.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는 땅에서 '하느님, 미국을 축복하소서'를 부르며 기쁨과 흥분으로 즐거운 축제 분위기였다. 미카엘라가 비스카를 데리고 와서 잔 신부님 곁에 앉혔다. 첫 번째 줄에 있는 사람들이 비스카의 손을 잡고 사진을 찍었다. 비스카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포옹하고 키스해 줄때 우리 일행들은 놀라움에 빠졌다. 수 없이 성모님을 만난 목격증인과 포옹하고 그 손길을 직접 만진 것이다. 나는 이 성지에서 내가 지고 온 모든 근심걱정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구름 위를 걷는 평화를 느꼈다.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미가 내 온 몸을 가득 채웠다.

일행들은 버스를 타고 낸시와 패트릭을 만나러 '티 없으신 두 성심께 봉헌된 성'을 방문했다. 캐나다에서 성공적인 명품 자동차 딜러로 부유한 삶을 살던 패트릭은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메시지를 읽은 후, 믿을 수 없는 신앙 체험을 했다. 변호사인 낸시도 성황 중이던 변호사업을 중단하고 남편과 함께 메주고리로 와서 요조 신부님의 영어권 비서로 봉사했다. 22년 동안 메주고리에 살고 있는 그들은 아름다운 성을 지어 성모님께 봉헌하고 자신들이 받은 소명, 즉 다른 이들을 섬기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체험과 믿음을 나누는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했다. 돌로 된 건물은 곳곳에 장미가 만발하고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는 건축가들의 꿈과 같은 건

## 내가 아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사랑하여라.

축물이다. 이 곳에 있는 다리는 나에게 영적인 '성장' 또는 '나아감'을 나타내 주는 것이 기도 했다. 나는 그곳에 머물면서 하느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생각하고 싶었다.

제4일 - 오늘 오후 일정은 하느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생활하는 체나콜로 여자 공동체를 방문한다. 미카엘라가 체나콜로에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순례자들도 정성을 모아 주었다. 이른 아침에 장을 보러가는 미카엘라를 돕기 위해 다나와 메리가 동행했다. 호텔 앞에는 체나콜로 공동체에 갖다 줄 싱싱한 야채와 감자, 상추, 마늘, 킬리플라워, 토마토, 오이, 바나나, 오렌지, 배, 딸기, 레몬 등의 기타 재료들이 수북이 쌓여있었다. 아기 기저귀용품 등도 사려고 했으나 돈이 부족해서 야채만 샀다고 한다. 여자 체나콜로에 도착해서 순례자들이 가져 온 야채와 과일 박스들을 하나씩 들고 운반하면서 일행들은 나눔이 주는 놀라운 기쁨과 감동을 체험했다. 주방을 담당하는 카타리나는 한 시간 전에 야채가 없어서 부엌에는 양배추 2개와 감자 몇 개 남았을 뿐이었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했다. 그리고 주말에 있는 결혼식 피로연을 준비할 음식이 없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한다.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공동체에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셨다! 두 명의 젊은 공동체 회원들의 체험담을 들려주었다. 미국에서 온 리사가 4년 동안 체나콜로에서 겪은 체험담 중에 회원들이 말로 상처를 주고 받았을 때, 공동체를 설립한 엘비라 수녀님이 권하는 3가지의 규칙을 말해주었다. 첫째,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할 때 변명하지 말고 침묵할 것, 둘째, 늘 미소를 지을 것, 셋째, 잘못을 지적한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먼저 숨을 크게 쉬고, 삼킨 후 침묵할 것, 그리고 상처를 준 사람은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자존심을 버리고 변명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상처 받은 회원에게 용서를 청할 말을 준비해서 다시 만나야 한다고 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훈인가! 우리 모두가 꼭 배워야 하지 않는가!

루마니아에서 태어나 체나콜로에 온지 10년이 된 카타리나는 어릴 때 어머니가 남동생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아버지는 그녀를 할머니에게 맡겼다.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돌봐 주시는 할머니의 사

랑에도 카타리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아픔과 상처 때문에 사춘기에 마약을 했다. 한동안 집을 떠나 남자 친구와 살았지만 그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된 카타리나는 상처를 받았다. 그리고 몰래 그 남자의 곁을 떠나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마약중독에 빠졌다. 할머니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손녀딸을 체나콜로에 보냈다. 카타리나는 그 공동체에서 신앙과 믿음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면서 사랑스런 여성으로 성장해서 지금은 주방일을 맡고 있다.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남동생 및 가족들과 지속적인 연락을 하면서 공동체 밖의 가족들도 다시 찾았다고 한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 생활 속에서 영혼을 구하는 이들의 체험담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들은 지금 사랑스런 사람들이다. 호텔에서 저녁식사 후 줄리와 앤을 포함해서 10여명의 일행들과 호텔 로비에 있는 미팅룸에서 '사랑의 불꽃 목주기도'를 바쳤다. 아멘, 알렐루야!

제5일 - 토요일: 아침 일찍 식사를 하고 고대 성곽으로 된 항구 도시인 드브로브니크로 갔다. 이 도시의 주보 성인은 성블라시오다. 아드리아해의 해변을 따라 가는 길은 경치가 장관이었다. 매우 오래된 경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이곳의 전통에 의해 잔 신부님이 미사가 끝난 후 목에 강복을 받은 후 프란치스코 수도원과 성 실바노의 유해가 있는 성당을 방문했다. 고대 세계의 매력이 넘치는 항구의 레스토랑에서 올리브가 풍성하고 맛깔스런 해물 요리로 점심을 먹었다. 일행들은 자유시간에 항구를 도는 보트를 타기도 했고, 혹은 도시와 항구가 내려다보이는 멋진 자연을 보기 위해 성벽을 올라갔다. 우리는 메주고리로 돌아 와서 저녁예절에 참석했다.

제6일 - 일요일: 버스를 타고 머시 호스피스와 성 요셉 근로자 경당으로 가서 잔 신부님과 론 켈리 부제가 집전하는 미사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온 미국인 미리암 수녀와 매리 월시는 흥미로운 체험담을 들려주었다. 두 사람이 그곳에서 한 일들은 모두 하느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너무나 아름다운 선교였다. 그 후, 메주고리에 성모님으로 알려진 성당을 방문하고 단체 사진을 찍었다. 성모님은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

름다웠다. 우리는 준비해 온 점심을 먹고 야고버 성당에서 오후 3시에 있는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를 탔다. 신랑 신부는 체나콜로 공동체 회원들이었다. 우리 순례단이 체나콜로 여자 공동체에 전한 음식들이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하는 350명분의 음식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기뻐했다.

다음 순례여행은 무릎에서 물이 나오는 부활 십자가상을 방문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신비스런 모습이었고 기적처럼 보였다. 일행들은 방울방울 떨어지는 물로 축복받기 위해 모두 자신들의 명찰과 목주의 십자가를 이 기적수를 문했다. 저녁식사를 기다리며 호텔 밖에 있던 일행들이 태양이 돌고 박동하는 하늘을 보고 매우 놀라워했다. 태양이 춤추는 광경을 목격한 모든 이들은 축복을 받은 느낌이었다. 이 광경을 목격하신 잔 신부님은 눈이 상하지 않도록 태양을 너무 오래 쳐다보지 말라고 충고하셨다. 이 기적적인 일은 성모님께서 발현 하시는 저녁 6시 40 분에 일어났다. 저녁 식사 후 잔 신부님에게 성물들을 축복받고 신앙체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 순례자가 이번 순례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한 것처럼 모든이에게 정말 멋진 신앙체험이었다. 이번 순례 기간 동안 우리 일행들은 모두 기쁨과 행복이 넘쳐 있었다.

제7일 - 월요일: 몇몇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십자가 산에 올랐다. 몇몇은 사랑의 불꽃 목주기도를 바치기 위해 아침 일찍 발현산의 청 십자가로 갔다. 이곳에서 나는 사랑의 불꽃 합일기도 카드를 나눠 주었다. 몇몇은 담장으로 둘러진 공동체 평화의 오아시스 경당에서 기도하기를 원했다. 조그만 경당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진흙으로 빚어진 예수님을 보았다. 머리카락, 눈, 이, 그리고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현실감있게 표현된 예수님의 몸을 바라보면서 자비심의 기도를 바치는 것은 매우 감동적인 체험이었다. 바비와 나는 예수님 무릎에서 흐르는 물방울에 명찰을 적시고 자비심 기도를 바치기 위해 부활 청동상에 다시 갔다. 아침 10시의 영어미사에 참석 후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 성당 근처로 갔다. 나는 아일랜드에서 오신 신부님에게 고해 성사를 받고 많은 것이 씻겨 내려가는 체험을 했다. 신부님은 순례자들에게 똑같은 보속을 주고 계셨다. 아주 거칠고 뾰족한 돌 하나를 골라서 그것이 예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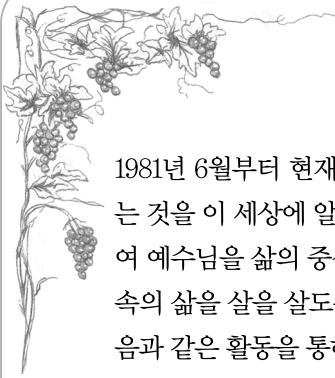


메주고리에 주민들이 결혼식때 모시는 십자가

님께 가는 것을 막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 하라고 하시며 다시 모양이 매끄러운 돌 하나를 찾으라고 하셨다. 그리고 하느님께 떨어지게 하는 모든 것과 함께 거친 모양의 돌을 던져 버리고 매끄러운 모양의 돌은 간직하라고 하셨다. 또한 그 돌을 자주 만지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 심장 가까이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부탁하셨다. 아멘, 알렐루야!

이번 순례동안 미카엘라가 전해 준 성모님 메시지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주었다. 우리들은 성모님의 메시지가 내 삶이 되기를 청하며 매일 묵상하고 기도했다. 매일 받는 성모님 메시지는 마치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것과 같은 기쁨이었다. 이 메시지 전달 방법은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다른 이들도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작은 방법이 될 것이다. 제 90차 메주고리에 순례자들을 위해 훌륭한 안내를 해준 평화의 모후 선교회 봉사자 그레고리오와 미카엘라 부부에게 가슴 깊이 감사를 표한다. 우리들이 아무 부족함이 없이 평화로운 순례를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 헌신 하는 부부 봉사자를 만난 것은 큰 축복이었다. 또한 목격증인들과 같이 성장하고 성모님 메시지와 메주고리에 마을의 역사를 잘 아는 현지 안내자 스테파니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성모님께 완전히 봉헌되신 이번 순례의 영적 지도자이신 잔 신부님은 마지막 여행이 되실 이번 메주고리에 순례여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신부님의 헌신적인 노력과, 성령으로 가득 찬 굳은 믿음에 박수를 보내드린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제로부터 영원히 찬미와 존경받으시고 영광 받으소서! 아멘. 알렐루야! 오소서 성령이여! 티 없으신 성모성심의 사랑의 불꽃의 능력으로 오소서!



# 평화의 모후 선교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요한2:5)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메주고리에에 발현하고 계시는 성모님께서서는 "나는 하느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께서서는 수 많은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 자신과 가정, 그리고 세상의 구원과 평화를 위해 기도, 회개, 믿음, 보속의 삶을 살을 살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2000년 성모님의 부르심으로 설립된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성모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합니다.

- |                         |                              |
|-------------------------|------------------------------|
| 1.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 발행 | 4.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들의 구현을 위한 활동   |
| 2. 신앙 체험을 위한 성지순례 안내    | 5. 메주고리에 및 성모신심 관련 서적 출판     |
| 3. 평화의 모후 기도회 설립 및 지원   | 6. 메주고리에와 성모 신심 관련 인사 초청 강연회 |

성모님께서서는 "나는 너희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의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 발행과 무료 보급을 통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회원들의 참여와 정성으로 운영되는 가톨릭 비영리단체인 선교회의 사명에 동참해주시는 회원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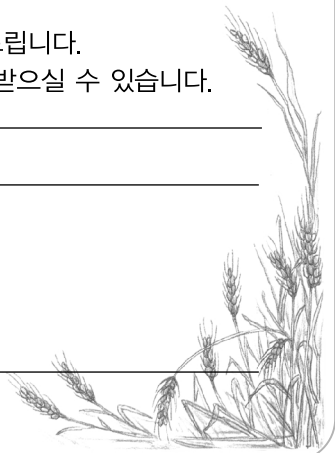
1.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를 보내드립니다.
2. 메주고리에 순례때 회원들과 가정을 위한 미사를 봉헌해드립니다.
3. 회원들을 위하여 매주 및 매월 첫 토요일 미사와 성모송 천 번 봉헌과 미사를 해드립니다.
4. 회원들이 보내주시는 미사와 기도지향들은 성모님의 발현 목격증인 비스카에게 전달하여 성모님께 봉헌하고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5. 선교회로 친지와 가족들의 주소를 보내주시면 '평화의 모후'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6. 모든 후원금은 성모님의 메시지 전파를 위한 사명에 사용되며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안내

**국민** P.O. Box 843, Ridgefield, NJ 07657  
 예금주 : Queen of Peace Missionary  
 은행: WELLS FARGO  
 송금번호: ABA# ( 031201467 )  
 Acct.# ( 2000012394184 )

[www.qpmm.org](http://www.qpmm.org) / E-mail: [qpmm.org@gmail.com](mailto:qpmm.org@gmail.com)

Tel : (201) 945-4777 / CP (917) 626-4314 카톡 평화



##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 신청서

성명: \_\_\_\_\_ 영세명: \_\_\_\_\_

주소 : \_\_\_\_\_

전화 : \_\_\_\_\_ (CP) : \_\_\_\_\_ E-mail : \_\_\_\_\_